

보도자료

2023. 2. 13.



양형위원회

문의

운영지원단장 범선윤
(☎ 031-920-5601)

양형위원회 2/13(월) 제122차 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(위원장 김영란)는 2023. 2. 13. 15: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어, 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, ②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,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음

[주요 내용]

- ☑ 교통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고,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
- 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
- ☑ 음주운전 · 음주측정거부 ·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
- 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
- ☑ 양형기준의 전체적 정비

☞ 향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23. 4. 24.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예정

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

1.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

▣ 양형위원회는 2022. 3. 28. 제115차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의결하였고, 이에 따라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하였음

▣ 양형위원회는 이번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범죄 군별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나갈 예정임

- 벌금형 양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법관의 합리적 양형재량을 보장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

2. 형종 선택의 기준 제시

▣ 형종 및 형량기준표에 ① ‘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’, ② ‘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’, ③ ‘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’을 제시하고, 여기에 적절한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

- 예컨대, **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**에서는 금고 8월 - 2년이 권고되지만,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음. 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금고형이 권고됨
- **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**에서도 금고 8월 - 2년이 권고되지만,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음

01¹ 교통사고

가. 일반 교통사고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교통사고 치상	- 8월 100만 원 - 700만 원	4월 - 1년 500만 원 - 1,200만 원	8월 - 2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2	교통사고 치사	4월 - 1년 500만 원 - 1,500만 원	8월 - 2년	1년 - 3년

※ 금고형

- ▷ 1유형의 가중영역: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,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.
- ▷ 2유형의 기본영역: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.

■ 위와 같은 방식은 실제 법관의 양형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, 형종과 형량범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, 형종 선택에 기존의 권고영역과 양형인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형종 선택과 형량범위의 이중 평가로 인한 비효율이나 혼선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

3. 양형기준 추가 설정
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자유형 및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
-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다음과 같이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도출함

가. 어린이 교통사고

01¹ 교통사고

다. 어린이 교통사고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어린이 치상	6월 - 1년6월 300만 원 - 1,500만 원	10월 - 2년6월	2년 - 5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2	어린이 치사	1년6월 - 3년	2년 - 5년	4년 - 8년

▷ 1유형의 기본영역: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,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.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●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(1유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(1유형) 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청각 및 언어 장애인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누범
일반양형인자	행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(1유형) ●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) ●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

나. 음주·무면허운전

03¹ 음주·무면허운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무면허운전	50만 원 - 150만 원	- 8월 100만 원 - 200만 원	6월 - 10월 150만 원 - 300만 원
2	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)	100만 원 - 300만 원	- 8월 200만 원 - 400만 원	6월 - 10월 300만 원 - 500만 원
3	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0.2% 미만)	6월 - 10월 300만 원 - 600만 원	8월 - 1년4월 500만 원 - 800만 원	1년 - 1년10월 700만 원 - 1,000만 원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4	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	1년 - 2년 700만 원 - 1,200만 원	1년6월 - 3년 1,000만 원 - 1,500만 원	2년6월 - 4년
5	음주측정거부	6월 - 1년2월 300만 원 - 1,000만 원	8월 - 2년 700만 원 - 1,500만 원	1년6월 - 4년

- ▷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: 3회 이상 벌금형(집행유예 포함) 이상 동종 전과(5년 이내)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.
- ▷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,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·기본영역: 3회 이상 벌금형(집행유예 포함) 이상 동종 전과(5년 이내)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.
- ▷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: ① 3회 이상 벌금형(집행유예 포함) 이상 동종 전과(5년 이내)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.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.
- ▷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: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.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●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(5유형)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청각 및 언어 장애인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자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누범
일반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생계형 범죄(1유형) 	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)

4.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

가. 교통사고 후 도주

-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,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상·치사 후 도주의 행위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함

02¹ 교통사고 후 도주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치상 후 도주	6월 - 1년6월 300만 원 - 1,500만 원	8월 10월 - 2년6월	1년 - 5년 2년 - 6년
2	치상 후 유기 도주	1년6월 - 2년6월	2년 - 4년	3년 - 7년
3	치사 후 도주 (도주 후 치사)	2년6월 - 4년	3년 - 5년 6년	4년 - 8년 5년 - 10년
4	치사 후 유기 도주 (유기 도주 후 치사)	3년 - 5년	4년 - 6년 7년	5년 - 10년 6년 - 12년

▷ 1유형의 기본영역: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,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.

나. 음주 교통사고

■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보다 상향됨

○ 기존 양형기준은 '음주운전인 경우'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하였음

①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인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

■ '음주운전 등의 경우' 라는 특별가중인자 적용 →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8월 - 2년 권고

②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인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

■ '음주운전 등의 경우' 라는 특별가중인자 적용 → 교통사고 치사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1년 - 3년 권고

○ 신설된 음주운전 양형기준안을 적용하여 산출된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음

①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인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

■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(4월 - 1년) 및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의 기본영역(1년6월 - 3년)을 다수범죄 처리 → 1년6월 - 3년6월 권고¹⁾

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까지 가능

- ②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인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
-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(8월 - 2년) 및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)의 기본영역(1년6월 - 3년)을 다수범죄 처리 → 1년6월 - 4년 권고
 -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6월까지 가능

5. 양형인자의 주요 특징

가. 특별가중인자

- 무면허·음주운전(대유형 3)에서 ‘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’, ‘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(음주측정 거부외 경우)’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

-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중앙분리대,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
-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-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
-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특별감경인자

- 무면허·음주운전(대유형 3)에서 ‘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’, ‘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’를 각각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

-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-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, “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”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
-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동종 전과

-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모든 유형에서 동종 전과를 양형가중인자로 반영하되 ‘동종 누범’을 특별가중인자로, ‘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(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)’를 일반가중인자로 각각 규정함

- 동종 전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둠

- 일반 교통사고(대유형 1), 교통사고 후 도주(대유형 2)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, 교통사고 후 도주(대유형 1, 2)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.
- 다만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(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)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.
-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.

- 음주·무면허운전(대유형3)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·무면허운전(대유형 3), 위험운전 교통사고(대유형 1 중 중유형 나)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.

②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

-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비 사항을 교통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3개 범죄군에 반영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음

- ‘진지한 반성’ 및 ‘형사처벌 전력 없음’ 정의규정 통일적 반영

-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‘피고인이 고령’ 삭제
 - 심신미약에 관한 서술식 기준 반영
 - 형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의 변경(농아자 → 청각 및 언어 장애인, 작량 감경 → 정상참작감경) 반영
 -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신설에 따른 전과 관련 문구 수정
-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임

③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23차 회의)

- 일시 : 2023. 4. 24. (월) 오후
- 안건: 정보통신망·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, 관세범죄 양형기준안, 교통범죄 양형기준안,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 심의,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

1) 음주운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+ 교통사고 치상 형량범위 상한의 1/2인 6월($1년 \times 1/2$) = 3년6월
 2) 음주운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+ 교통사고 치사 형량범위 상한의 1/2인 1년($2년 \times 1/2$) = 4년